

# 해남군 지역 미래 먹거리 찾기...신규시책 249건 발굴

## 성장동력 확보 사업 보고회

### 실행력 높일 방안 등 논의

### 전문가 자문·보완 국·도비 건의

“지역미래 책임질 먹거리를 찾아라” 해남군은 최근 2024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책 발굴에 나섰다

이번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는 해남군의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발전상을 확보하기 위해 발굴된 신규시책 249건에 대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해남군 발전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가능 성장동력과 장기발전 비전을 담은 미래전략 제안사업, 국·도정 정책기조 등에 대응하며 3~5년간 전략적 계획이 필요한 중장기 프로젝트, 지역현안 해결, 소소한 군민 공감형 정책 등을 반영한 일반 신규시책으로 3개 분야로 걸쳐 대거 신규시책을 발굴해 관심을 모았다.

주요 시책으로는 ▲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 전남 전시기반시설 건립 추진 ▲ 유기농 농산물 수출 생산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 미래전략 사업 28건 ▲ 신재생에너지 직접화단지 조성 ▲ 청년 유토피아 임대주택 조성 ▲ 지역활력타운 조성 ▲



해남군(군수 명현관·맨 오른쪽)이 최근 최근 2024년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시책 249건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 밀일 숲 네트워크 조성 등 중장기 프로젝트 39건, 새롭게 추진하게 되는 신규시책 182건이다.

이번에 발굴된 시책은 25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해남군 정책자문단의 정기회의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구체화, 내용을 보완하여 국·도비 건의과제 등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앞으로도 해남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신규시책 발굴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국·도정의 정책기조를 놓치지 말고 선점하여 해남군이 농어촌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의 역량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완도군 ‘해상풍력 사용 허가’ 적극행정 ‘우수’

### 4년 연속 전남도 기관 표창

완도군이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적극적으로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기관표창(장려상)을 받았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완도군에 사수도 인근 해상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어 군은 해상경계 확보에 적극 나섰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방부, 완도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에 질의를 통해 완도군이 점·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적정성도 확인했다.

이에 지난 4월 점·사용 허가를 승인했으며 앞으로 군은 전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상경계 사수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도군은 이번 수상으로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분야 해상 확대’를 시작으로, 2021년 ‘LPG 배관망 사업 연계, 취약계층 보일러 무상 교체’, 2022년 ‘섬 제외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 제도 개선’을 이끈다’로 기관표창을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4년 연속 수상으로 우리 군이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우수 사례 발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ng@

##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 10월 개최 막바지 준비 분주

영광군이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10월 개최를 앞두고 다양한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영광군은 지난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정섭 부군수 주재로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행사를 할 달 보름가량 앞두고 위원회는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 기업과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지역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운영위원회는 김정섭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영광군의회 의원, 전남도, 한국자동차연구원, 사단법인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영광교육지원청, 지역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오는 10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e-모빌리티 제품을 전시·할인 판매하며 시승체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10월6~9일) 개최를 앞두고 운영위원들이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진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험도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경품 추첨과 로봇·드론·자율주행체험, 블랙이글스 에어쇼, 미래인재 과학축전,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김정섭 부군수는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협조하는 운영위원회에 감사

를 전한다”며 “위원들이 낸 의견을 보완 반영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w@kwangju.co.kr

## 목포 청소년 행복시민 성장 토론회...중장기 청소년 정책 논의

###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목포시가 중·장기적인 청소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목포 청소년 행복시민 성장 토론회’를 최근 열었다.

토론회는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원하는 ‘2023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목포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유인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윤여승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장이 사례 발표를 했다.

이어 백지숙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목포 청소년,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지역 인구 감소 가속화와 청소년 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청소년 정책을 논의했다.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시민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 격차를 좁힐 방안도 이야기했다.

토론에는 백동규 목포시의원, 최해동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주인철 목포청소년행복



목포시가 최근 연 ‘목포 청소년 행복시민 성장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중·장기 청소년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성장협의체 위원장, 양세빈 목포시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목포시 아동청소년 팀장 등이 참여했다. 청소년 토론 참가자인 양세민양은 “청소년 정책은 대상에 대한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인구정책으로 봐야한다”며 “목포가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도시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시와 하당청소년문화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목포 청소년 명에 동장을 뽑고 목포시의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속해서 자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 해남 시설 무화과 당도 최고 인기 상종가

### 50여농가 23ha 수확 한창

### 12월까지 390t 생산

해남군 특화작목인 시설 무화과 수확이 한창이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설 무화과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외관이 깨끗하고, 당도가 높아 노지 무화과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긴 장마와 잦은 비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수확량은 줄었지만 품질은 오히려 월등해지면서 무화과의 인기는 연일 상승기를 달리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관내 50여농가, 23ha에서 시설 무화과를 재배할 예정으로, 송지면 일원에는 시설하우스 무화과 재배단지도 밀집돼 있다.

최신 하우스 시설에서 상자를 이용한 수경재배로 생산되기 때문에 껍질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높은 당도와 치밀한 조직으로 최고급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해남무화과연구회 전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땅끝무화과주식회사를 설립, 공동작업을 통해 당도와 무게 등 규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출하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해남 시설무화과는 7월 중순부터 출하를 시작해 12월까지 수확되며, 연간 390여t을 생산하고 있다.

송지면 군곡리에서 시설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는 황인복씨는 “노지 무화과에 비해 품질이 매우 뛰어나 해남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며 “당일 배송으로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으므로 맛있는 무화과 많이 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무화과 농장에서 시설 무화과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수확한 무화과를 들어 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 영암도기박물관 ‘생활도예교실’ 수강생 모집

###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강좌

영암도기박물관이 하반기 생활도예교실 ‘도기 빚기로 손가락 요가해 볼까요?’에 참여할 수강생을 24~31일 선착순 모집한다.

생활도예교실에서는 흙을 주무르고 도기 작품을 빚으며 손가락 근육을 써보고 마음을 단련할 수 있다.

도기박물관은 해마다 영암군민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초보자과정 생활도예교실과 심화 과정 도예동아리 강좌로 구성된 성인도예교실을 열고 있다.

흙을 만지고 그릇을 빚어 구워내는 과정이 손가락 소근육의 물리적 운동, 마음을 수련하는 심리적 운동을 겸비하고 있어 요가와 유사한 건강 효과가 있다고 박물관은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도기 빚기 기초와 장식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동시에 12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 유약 그릇 영암 ‘구림도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수업도 한다.

가마 소성 비용을 제외하고 영암군민 성인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열린다.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 일부는 12월 작품전시회에 출품된다.

영암도기박물관 관계자는 “영암군민의 품과 마음 건강을 살피고 구림도기의 전통을 잇는 강좌에 많은 분이 참여해 문화·예술·건강 생활을 두루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무안군 청년센터 ‘문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무안군 청년센터가

‘문화 프로그램’ 무료 수강생을 오는 9월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무안에서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군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무안군 청년센터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11개 무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꽃꽂이와 집밥 요리 등을 통한 ‘치유 교실’, 3차원 프린터 활용 소품 제작, 영상 편집, 자신만의 색깔 찾기, 가죽 공예, 목공예, 자수, 아크릴화 만들기, 자개 소품 제작 등이 있다.

무안군은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야간 수업 위주로 교육을 구성했다.

참가를 원하는 청년은 무안군 누리집 고시공고



무안군 청년센터 교육에 참여한 청년들이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목공예를 배우고 있다. <무안군 제공>

를 확인해 신청서를 청년센터에 내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청년 창업가들과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강사와 수강생들이 어우러져 청년 공동체 문화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